
 인천신용보증재단 <small>INCHEON CREDIT GUARANTEE FUNDATION</small>	보 도 자 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6년 5월 26일(화) 총 4매(사진 有)	
담당 부서	보증사업부	담당자	박재영 부장 ☎ 032-457-7955 유해준 차장 ☎ 032-457-7957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누적 보증공급액 17조원 돌파

- 어려운 경제여건 속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확대
- 올해 보증공급 8,033억원 지원, 연간 목표의 67% 조기 공급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이부현)이 누적 보증공급액 17조원 돌파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재단은 1998년 설립 이후 담보력이 부족한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유통을 지원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내수 회복 지연, 중동 상태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책보증 공급을 통해 누적 보증공급액 17조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17조원 돌파는 지난해 누적 보증공급 15조원을 달성한 이후 약 1년여 만에 2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 공급한 결과이다. 재단은 연초부터 「인천광역시 희망인천 특례보증」, 「인천형 소상공인 밸류업 특별

보증」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보증상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현장 자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해 왔다.

올해 재단의 보증공급 속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재단은 2026년 보증공급 목표를 1조 2천억원으로 수립하였고, 5월 22일 기준 8,033억원 보증을 공급해 연간 목표의 67% 수준을 달성했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증심사 및 자금공급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재단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총 3,2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진하고 있다. 전년 대비 지원규모를 375억원 확대하고,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재단 조사연구실에서 실시한 2025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용고객 효과 분석(2,771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특례보증 지원 이후 응답자의 영업상황 개선 비율은 70.2%, 자금운용 원활 비율은 78.1%로 나타났다. 자금지원의 효과가 6개월 이내에 나타난다는 응답도 80.7%에 달해, 재단의 정책보증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비대면 보증신청, 디지털 창구, 보증심사 자동화 등 정책금융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고객 편의성과 보증처리 속도를 함께 높이고 있다. 재단 방문이 어려운 1인 사업자와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소

상공인의 불편을 줄이고,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신속하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부현 이사장은 “누적 보증공급 17조원 돌파는 지난 28년간 인천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해 온 재단의 노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만들어낸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금융지원과 경영지도를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채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올해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준공과 함께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금융·비금융 연계 지원, 상생금융 협력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